

중등학교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향

- 고등학교 중간 고사 및 기말 고사를 중심으로 -

류수열*

〈 차례 〉

1. 논의의 목표
2. 중등학교 국어 총괄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 2.1. 국어 총괄 평가의 현황
 - 2.2. 국어 총괄 평가의 문제점
3. 국어 시험의 개선 방향
4. 국어 시험 개선을 위한 제언

1. 논의의 목표

원론적인 차원에서 평가는 인간 규정이 아니라 인간 이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따지고 재고 야단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류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한 인간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가늠하는 데 목적을 둔 평가가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평가는 계속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시험만이 평가가 아니라 수업 장면, 과제물, 대화 등등의 모든 국면에서 평가의 기능은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학업 성적만이 아니라 태도, 인성, 사회성, 자아 개념, 도덕성, 신체 발달 등 여러 면이 동시에 평가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평가의 자료와 대상, 시간은 거의 무제한적이다. 학생이 남겨 놓은 낙서 한 줄, 그림

*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한 장, 일기장 한 토막, 대화 한 마디가 모두 그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김종서 외, 1997: 356-359)

이러한 평가 일반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교과교육의 차원에서 전개한 평가론은 비교적 풍성한 편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어교육평가의 대체적인 방향이나 원칙은 충분히 모색되었고, 그 결과들도 연구 집단은 물론 정책 집행 집단과 실행 집단의 대체적인 동의 혹은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는 국어교육 평가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성으로 제시했거나 전제로 삼은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하면, 단순 지식보다는 고차원적 사고력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교사보다는 학생에, 내용보다는 방법에, 학문성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방향에는 선택형의 지필 검사보다는 실제적인 수행을 통한 평가가 부합한다는 점도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¹⁾ 패러다임은 대상을 보는 방법, 문제를 삼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의 총체이기에, 국어 시험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정점에 위치해 있는 수행 평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일관된 축적·진보·발달보다 불연속적인 교대를 속성으로 한다는 쿤(T. S. Kuhn)의 설명을 입증이나 하듯, 과거에 우리가 시행해 왔던 평가 도구들이 거의 유물로 간주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기존에 의존해 왔던 평가 방식과 도구들이 과연 미덕은 없었던가, 미덕이 있었다면 그것을 존중할 수는 없겠는가. 또 폐해가 생겨난 것은 평가 도구들의 근원적 한계인가 시행상의 오류에 불과한가 등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1) 국어교육 전반에 걸쳐 원론적인 논의를 펼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노명완(1988), 노명완(1990), 김광해(1994), 이삼형(1999), 김창원(1999), 박인기(2000), 최미숙(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 외에 특정 영역이나 교과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한 유형의 평가 도구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은 연구 성과들은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 평가 일반론적 진술이 간과하기 쉬운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의 개별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려도 섬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발을 위한 시험과 교정을 위한 시험의 차이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이다.²⁾ 이 발표는 모든 평가 유형이 제각각의 특장과 고유한 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본고에서는 평가 일반론적 관심이나 국어교육평가의 원론적 접근은 가급적 삼가기로 한다. 이런 차원의 논의가 제공해 주는 평가의 이념과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철저하게 중등학교에서 국어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평가 도구 제작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 도구의 개발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현장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루기로 하겠다. 학교에서 치르는 국어 시험 중에는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도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장에 밀착하여 실재를 확인하지 않는 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육평가의 일반론적 차원과 국어교육의 원론적 차원은 지속적인 통찰의 준거로 활용될 것이다.

주지하듯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원칙적으로 총괄 평가로서³⁾,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공식성이 가장 강하여 그 평가 점수는 기록으로 남으며, 상급 학교 진학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따라서 학생의 입장에서나 학교의 입장에서나 매우 비중 있는 평가라 할 것이다. 또 그 형식은 대체로 지필 평가로서, 선택형이 대종을 이루고 단답형이 전체 배점의 약 30% 정도 부가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어떤 면에서 선택형 지필 평

2) 이는 특히 수행평가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서, 백순근(1997), 백순근(1999) 등의 일련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3) 이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칭하여 부를 때는 '총괄 평가'라 하겠다. 물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총괄 평가의 유일한 형식은 아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와 연말고사 또한 총괄 평가에 해당된다.

가의 의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4)와 맞물려 있다.

논의를 위해 먼저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시험 문항을 수집하였다. 또 소규모이긴 하나 교사들이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 교사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중등학교 국어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 중등학교 국어 총괄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2.1. 국어 총괄 평가의 현황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국어과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문항5)을 검토한 결과를 대략적으로 서술하면서, 특징적인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가능하기만 하다면,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시험 내용과의 조응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수험생들이 평가에 대비하는 방식 등등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평가 문항 제작시에 주로 참고하는 자료,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일 학년의 다른 교사와의 역할 분담 방법, 평가 문항 제작시에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 평가의 목적에 대한 인식,

4) 이에 대해서는 최지현(2000)의 성과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가치 생성 과정을 드러내게 하는 방안, 지식을 구성하고 일반화하게 하는 방안, 확산적 사고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방안에서 지필 평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종래 부정적인 관점에 의해 재단되었던 지필 평가의 의의와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 이 문항들은 2003학년도 1학기 서울 강남 지역 소재 6개 고교, 전주 지역 소재 3개 고교의 중간고사 시험지에 실려 있다. 과목은 국어, 문법, 문학, 독서, 국어생활이다. 이하에서 문항을 인용할 때에는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 이니셜만 드러내기로 하였다.

피드백을 포함한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 수행 평가와의 관계 설정 방식 등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⁶⁾

그러나 국어교육의 현장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생략되더라도, 우리의 일반적 경험과 현직 교사들의 증언⁷⁾을 통해 국어 교실의 풍경을 그려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아래 제시되는 문항은 목표 타당도와 문항의 완성도 측면에서 비교적 모범에 가깝다는 점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면 제한상 지문은 생략함 : 인용자 주)

(지문 :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최재천))

1. 이 글의 구성과 거리가 먼 것은? (3.5점)

- ① (가) : 도입 ② (나) : 문제 제기 ③ (다) : 반론
 ④ (라) : 예시 ⑤ (마) : 결과

6)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사 대상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회수된 결과가 미미하여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는 이후 논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조하기로 하겠다. 설문지 초안을 제공해 주신 전주교대 서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7) 몇 가지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철저하게 '현실 원칙'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한 현실 원칙이란 평가 대비 공부와 평가 도구 제작 및 평가 시행이 학생과 교사의 편의를 위해, 그들의 암묵적 공모에 의해, 그리고 정기적 행사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말이다. 아주 극단적이고 특이한 경우라 하겠으나, 시판되는 참고서나 문제지, 혹은 다른 종류의 유인물에 실린 문제를 함께 풀이하거나 미리 알려주고 그 중의 일부를 전제 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고사 원안 출제 후 출제된 문제를 수업 중에 지도 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이 있다는 증언이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2. ㉔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3.4점]

- ① 그래서 ② 그러나 ③ 그러므로 ④ 그리고 ⑤ 만약

3. 위 글을 읽고 영어 공용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때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3.6점]

- ① 영어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가. 따라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야.
 ② 언어란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역사와 문화, 얼이 담겨 있는 것이야. 무엇보다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지.
 ③ 지금 영어 공용화론을 내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
 ④ 하지만 영어를 공용화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식 구조가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
 ⑤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자녀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지만 투자한 시간이나 돈만큼 능률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영어를 공용화한다면 이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야.

[주관식 A-1] (라)의 ㉕에 들어갈 내용을 6어절 내외로 쓰시오. [4점]⁸⁾

[주관식 A-2] 필자가 우리말을 비유한 예(4음절로 된 것)를 (바)에서 찾아 쓰시오. [2점]

지문으로 제시된 글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국어(상)의 1단원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에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과 함께 실려 있다. 이 단원에서는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와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를 단원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⁹⁾ 이 평가 문항 세트는 발표자가 입수한 시험지 중

8) '그러면'으로 시작되는 문장의 뒷부분을 비워놓고 앞의 문장으로부터 내용을 추론해서 채워넣을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에서는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문항들을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이 경우 두 가지 패러다임을 분화시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겠다. 다만 단순 암기를 통해 미리 정해진 유일한 답을 찾는 유형을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학습자가 중층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답을 구성할 수 있는 유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귀속시키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살펴보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제도가 바뀐 뒤에 학교 총괄 평가에서 일어난 가시적인 변화는 선택지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선택지의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력을 평가하는 수능 언어 영역 유형의 문항들이 포진하게 되는 본질적인 차원의 변화까지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시 문항 중 3번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소 단순화되었지만 1번 문항도 수능형 문항으로 다듬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후술되겠지만 다름 아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약칭함) 언어 영역의 통제력을 말해준다.

한편 이러한 수능형 문항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문항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번 문항은 선행하는 문장과 이를 뒤따르는 문장의 의미 관계를 통해 접속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이 그다지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주관식 1번 문항도 답의 다양성이 전제된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관식 2번 문항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정답을 찾는 문제이므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 문항은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발표자가 확보한 다른 자료로 눈을 돌리면 진단 평가나 형성 평가에 어울릴 만한 문항도 도처에서 발견된다.¹⁰⁾

9)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 단원이 교육과정의 '내용' 중 '문학의 기능을 안다(10학년 문학의 1번 항목)'와 '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10학년 읽기의 6번 항목)'를 준거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문학 영역의 '본질' 범주와 읽기 영역의 '태도' 범주가 결합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불연속적인 교대라는 패러다임 본래의 속성이 실현되지 않고 두 가지 평가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국어교육 평가에 대한 이론적 점검과 모색이 비교적 선명한 패러다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판정이 가능한 경우가 없지 않아서, 하나의 문항이 두 가지 패러다임 중 어느 한 곳에 속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서두에서 제시한 각각의 몇 가지 중점을 참조하면 커다란 오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 자료를 확장해 보더라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단원 학습 목표와 전혀 무관한 문제¹¹⁾나 수능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¹²⁾가 있는가 하면, 문학(사)적 지식의 기억 여부를 묻는 문제¹³⁾도 발견된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단원의 목표에 부합하거나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3번 문항과

- 10)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는 주관식 문제가 대체로 전체 배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능 시험과의 형식적인 차이를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었다.
- 11) [G고 03학년도 1학기 '국어' 중간고사] (지문 : 소학언해 중 '공지 증즈드려 날러~')
 ※ (나)의 내용에 부합하는 한자성어는?
 ① 허장성세(虛張聲勢) ② 망운지정(望雲之情)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④ 맥수지탄(麥秀之嘆) ⑤ 자기당착(自家撞着)
 (참고로 이 지문이 실려 있는 단원의 제목은 '국어가 걸어온 길'이고, 학습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국어의 역사를 안다.", "국어의 음운·문법·의미·표기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안다.", "국어의 변화 과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 듣고 읽는다.")
- 12) 삼국유사 소재 계승의 한 구절인 '열반(涅槃)에 들었는데와 비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항(94학년도 1차 수능의 52번 문항)[J대부고 03학년도 1학기 '국어생활' 중간고사]
- 13) [C고 03학년도 1학기 '문학' 중간고사] (지문 : 바리공주(무가))
 ※ 이 글 전체의 이야기 유형과 유사성이 없는 서사 문학을 고르면?
 ① 「단군 신화」의 웅녀 ② 「주몽 신화」의 유화 ③ 「온달」의 바보 온달
 ④ 「구운몽」의 성진 ⑤ 「심청전」의 심청
 [G고 03학년도 1학기 '국어' 중간고사] (지문 : 그 여자네 집(박완서))
 ※ <주관식> 윗글의 시점을 쓰시오.

주관식 2번 문항은 교과서의 학습 활동(‘혼자 하기’ 및 ‘함께 하기’)을 변용하여 제작한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나머지 문항들이 학습 목표의 핵심어로 제시된 ‘배경 지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2.2. 국어 총괄 평가의 문제점

앞의 예시 문항은 비교적 모범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나 모범적이기는 해도 현재 중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시험 문제의 전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발표자가 입수한 시험 자료들은 대체로 관습화된 문제 유형이 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점의 단서는 이것이 모범적이기는 하되 전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잡힌다.

총괄 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의 효과와 관련해서 학습이 끝난 다음에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평가이다. 성취 수준의 도달 여부를 판정하여 서열을 부여하고, 집단들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서술한 바 두 가지 패러다임의 공존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수학 능력 시험과도, 진단 평가나 형성 평가와도 다른 목적과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총괄 평가의 정체성 상실이라 할 만하다.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지닌 문제점을 각각 따져보기로 하겠다. 먼저 학교의 총괄 평가가 수능의 영향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표준화의 과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지하듯 수능은 국가가 관장하는 대학 입시로서, 이는 평가의 전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표준화와 객관도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교와 교실, 그리고 개별 교과목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초월하기 십상이다.¹⁴⁾

14) 표준화와 객관도 지향의 평가가 지니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인기(2000: 95) 참조. 물론 수능 유형의 문항이 발휘하는 교육적 효과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드러내는 것은 국어, 독서, 문학, 국어생활, 문법 등의 하위 교과와 고유한 특성이 거세되어 있는 현상이다. 가령 문학 작품은 국어 교과, 문학 교과, 독서 교과, 국어 생활 교과에서 모두 다룰 수 있는 장르이다. 각각의 교과는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에 의해 통제되는 학습 내용이 다른 만큼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바도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능 유형의 문항 제작이 일종의 교육적 강박 관념으로 인해 교과와 경계는 허물어지고 만다. 이는 수능의 구심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와 맞물리는 문제점으로서, 개별 단위 목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할 때에는 단위 학습 목표와 텍스트의 부합 여부가 충분히 고려된다. 그러나 표준화의 위력에 의해 국어과 하위 교과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과 동시에 개별 단위의 고유성도 무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평가의 표준화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교실 단위의 개별성이다. 교사는 표준화된 단일본으로 제공되는 교재가 각 수업 사태의 요구를 개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재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재구성의 폭은 교사의 언어관 및 국어교육관, 학습자의 사전 지식 및 선수 학습 정도, 수업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재구성의 폭은 각이 할 것이다.(이삼형 외, 2000: 328) 그러나 표준화를 지향하는 수능형 문항의 흡인력에 의해 이러한 개별성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른바 'WYTIWYG 현상(What you test is what you get.)'의 한 사례로 간주된다. 이는 시험이 교수-학습 과정과 내용, 방법 등 교실 현장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현상을 뜻한다. 학생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수업에서도 검사하기 쉬운 기능이나 지식만을 강조하게 된다. 평가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송환(feed-back)을 제공하고, 또 평가 내용은 교수-학습의 내용을 규정한다.¹⁵⁾ 수능 시험이 개별 학교 단위의 평가를 통제하고, 학교의

평가는 교실 단위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어하는 구도인 셈이다.16)

수능 유형의 문항들이 표준화에 대한 강박 관념의 소산으로서 총괄 평가의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라면, 이른바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평가 문항은 평가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한 경우라 하겠다. 이는 학교 내부 혹은 교실 내부의 시험으로서 가장 일상적인 진단 평가나 형성 평가에 어울리는 문항들이 총괄 평가 문항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한다. 개념적 지식, 사실적 지식, 선언적 지식, 명제적 지식 등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형 문항의 답지로 활용되거나 단답형 문항의 정답으로 설정되는 것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런 종류의 지식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지식이든—설혹 그것이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용어대로 '무기력한(inert) 지식'이라 하더라도—많이 알수록 좋고, 이는 최소한 교양의 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지식의 숙지 여부와, 그것을 묻는 문항이 시험 그 자체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문학사적 지식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문학사에 대한 광범위한 개괄과 관련된 과목과, 그에 따라 강의에 의존하는 교수 방법들은 학생들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도울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개별적인 학생이 문학을 자료로서 개발하게 할 수는 없다(Carter, R. & Long, M. N., 1991: 4).”

또 이런 현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문항의 유형이 단답형이기

15) 최호성(1996: 155) 참조. 잠정적으로 이를 '시험 역류 현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적어도 교육의 과정(process)을 기준으로 보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 이것은 시험의 폐해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오히려 평가의 통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16) 사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는 참고서나 문제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필자가 회수한 설문지와 입수한 시험지에서 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도 상당히 흥미로운 과제일 터이나, 일단 이 논의에서는 비켜가기로 한다.

때문만은 아니다. 평가 문항은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단답형도 얼마든지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¹⁷⁾ 그러니까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평가 문항의 유형이 아닌 문항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다. 시험 자체를 위한 시험인가, 학생의 지적·정신적 성장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한 시험인가가 그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출발점, 즉 영가(零價, default)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인가 아닌가 하는 점일 것이다.

3. 국어 시험의 개선 방향

어떤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현상과 원인 진단에서 출발한다. 앞에서 총괄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폈으므로, 개선 방법은 지적된 문제점을 역방향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놓으면 찾을 수 있다. 환언하면, 교과별, 단원별, 교수-학습 장면별 특수성과 개별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와 구별되는 총괄 평가 고유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행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항의 질적 수준이 평가의 층위가 다른 수능이나 형성 평가 등과 달라져야 한다면, 어디에서

17)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전문 및 해설'(2001) 중 [별지 제6호]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선택형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설에서는 "선택형 지필평가는 선택적 반응을 요구하는 선택형, 진위형, 배합형 등의 문항을 의미하며, 단순 암기력에 의한 완성형, 단답형도 포함된다"고 했다(<http://www.moe.go.kr>의 '법령정보' 메뉴 중 '훈령' 참조). 다만 이것이 국가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단순 암기력에 의한'이라는 구절의 타당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그 차이의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물론 그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다고 해도, 개별 문항의 질적 수준이 거기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문항의 질적 수준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은 이 문제는 단순히 문항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이 선택형이든 단답형이든, 혹은 완성형이든 진위형이든 총괄 평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유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총괄 평가의 전형인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형성 평가의 기능을 일부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 학습이 아직 유동적인 시기에 교과 내용, 교수 방법, 학습을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인 형성 평가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따라서 학기 단위로 시행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총괄 평가에 귀속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이 논의에서는 일단 교육과정과 교재에 제시된 교육 내용 및 교육 목표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총괄 평가 자체의 목적이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총평하는 데 있고, 학업 성취 정도는 교육 과정과 그것이 구현된 교재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세부적인 교육과정 및 교재의 구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능 시험과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다.¹⁸⁾

그럼에도 또 한 가지 과제가 남는다. 진단 평가 및 형성 평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문항 구성 요소의 정교화와 복합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말한 문항 구성 요소란 교육 내용

18) 이에 대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가 수능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수준의 표준에 대한 긴장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적 표준에 대한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과 그 흡인력에 유인되어 수렴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여전히 문항의 유형이 아니라 문항의 질이 문제이다.

의 범주를 지칭하는 바, 현행 교육과정의 구분대로 본질(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원리(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 태도, 실체가 될 수도 있고, 국어과 교육내용에 대한 이념적 분류인 지식, 경험, 수행, 태도¹⁹⁾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범주는 독립적인 항목이 아니라 상호 연관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주간 결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본질과 원리, 본질과 태도, 원리와 실제, 지식과 수행, 경험과 태도 등등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운율'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식을, 파도의 왕복 운동, 걸음걸이, 달의 차고 기울기, 계절의 순환 등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율적 현상과 결합시켜 경험적 요소를 강화해볼 수도 있다. 또 '남녀', '신랑신부', '부부' 등의 단어를 두고, 남성이 여성보다 선행하는 현상에 대한 앞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평가적 태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단 이 과정에서 개별 문항 하나에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복합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단계화를 통해 이 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문항을 실험적으로 구성해 보기로 하겠다. 제재는 편의상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을 활용하기로 하겠다. 제재가 실린 단원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항목, 단원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문항 구성의 취지를 설명할 때 활용하고자 한다.

■ 제재 1 : 용소(龍沼)와 며느리바위

■ 단원명 : 짜임새 있는 말과 글

[단원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

-말하기(3) :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

19) 김대행(2002) 참조. 여기에서 제시된 범주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범주는 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차이도 많다. '태도'의 경우 같은 범주명을 쓰고 있지만, 교육과정에서는 동기, 흥미, 습관 등을 아우르는 정의적 영역의 내용 요소인 반면, 여기에서는 대상에 대한 주체적 가치 판단의 의미로 쓰인다.

다.

- 쓰기(3) :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 국어지식(4) :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단원 학습 목표]

-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를 안다.
-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
-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학습 활동](발췌)

- 〈함께 하기〉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말하여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에 따라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접속어나 지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메모해 보자.
- 〈혼자 하기〉 이 이야기의 내용 조직 방법을 알아보자.
- 〈혼자 하기〉 이 이야기의 내용을 신문 기사로 쓸 경우, 기사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개요를 작성해 보자.
- 〈함께 하기〉 예상되는 독자와 읽는 목적 등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게 조직되었는지 서로 비교해 보고, 다르게 조직한 이유를 말해보자.

이밖에도 '알아두기'란에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로서 단계성, 통일성, 일관성을 제시하였고, 내용 조직 방법으로서 시간적 조직 방법, 공간적 조직 방법, 인과적 조직 방법, 주제별 조직 방법,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 등이 있음을 밝혔다.

【문항의 실제】

***지문은 생략

〈주관식 1〉 다음은 위 글을 신문 기사로 재구성한 것이다. ()에 들어갈 접속어를 쓰시오. (그리고, 또, 한편)

천벌 받은 장자

- 탐욕이 참화 불러 -

인색한 부자가 천벌을 받아 집터가 높 () 시아버지 대신 쌀을 퍼준 며
으로 변하고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화석 느리는 스님의 예고에 따라 피신을 하
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던 중,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화석이 되었다.

지난 ○월 ○일 장연읍 인근 마을에서 이 사건을 겪은 주민들은 못된 시아
소문난 부자인 ○ 모씨(59세)가 시주를 버지 때문에 선량한 며느리가 화를 당
하러 온 영험한 스님에게 쌀 대신 쇠뿔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을 퍼준 뒤, 갑작스러운 비락과 함께 집

터가 높으로 변했으며, 김씨는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기자 -

1. 앞의 기사를 위의 전설과 비교한 결과로 옳은 것은?
 - ① 기사에서는 두 인물의 행위를 병렬적으로 진술했다.*
 - ② 기사에서는 논리적 인과 관계에 따라 사건을 배열했다.
 - ③ 기사에서는 시간이 역전되지 않은 채 순서대로 사건을 배치했다.
 - ④ 기사에서는 잉여적인 표현을 없애고 문어적으로 문장을 작성했다.
 - ⑤ 기사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고치고 주관적 해설이나 논평을 삭제했다.

위의 문항 중 <주관식1>은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 중 일관성에 초점을 두어 제작되었다. 지시어나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알아두기'란의 설명을 응용한 것이다. 선택형 1번 문항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장르의 글로 재구성했을 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육과정 내용 항목과 단원 학습 목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상하였다.

특히 이 두 문항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사실상 하나의 문항임에도 두 단계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즉 <주관식1>을 먼저 해결하고 1번 문항에 답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정하여 단계적 해결을 유도한 것이다. 이 경우 <주관식1>은 맞고 선택형 1은 틀린 경우, 반대로 <주관식1>은 틀리고 선택형 1은 맞는 경우에는 감점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답형 문항의 단편성을 극복하는 한편 '투기적 확률 게임'에 참여할 가능성²⁰⁾이 있는 선택형 문항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두 문항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용 범주간 결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맥락에 부합하는 접속어를 고르는 것은 실제 범주에 국한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원리 범주와의 관련성을 높인 것이다.

- 제재 2 : 기미독립선언서
- 단원명 : 생각하는 힘

[단원 관련 교육과정 내용 항목]

- 말하기(2) :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한다.
- 쓰기(2) :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단원 학습 목표]

-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중요함을 안다.
- 내용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여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있다.

[학습 활동](발췌)

- 〈함께 하기〉 이 글의 독자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이 글을 읽을 독자는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자.
 - (2)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혼자 하기〉 일제 강점기의 우리 나라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조선 독립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생성해 내었는지 말해 보자.
 - (2) 조선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설득 방법과 일본의 잘못을 비난하

20) 이는 최지현(2000: 111-112)에서 선택형 평가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이밖에 '알아두기'란에 내용 생성을 위한 준비로서 실험, 조사, 관찰 방법, 다른 사람과의 면담 방법, 도서관, 인터넷 등의 활용 방법을 제시 하였고, 내용 생성 방법으로서 배경 지식의 활용, 자유 연상을 통한 내용의 구체화, 유형화를 통한 주제의 구체화, 취사선택을 통한 독창성의 확보를 들었다.

【문항의 실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평등(오등)은 慈(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여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 만대)에 誥(고)하여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여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肅(합)하여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 발전)을 爲(위)하여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 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并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여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 |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 | 며, 全人類(전인류) 共存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跡(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劑(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強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여 有史以來(유사 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지 今(금)에 十年(십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 | 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礙(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 | 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毀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 | 며, 新貌(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 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

(기여 보비)할 機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도.

噫(회)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 將來(장래)의 脅威(협위)를 芟除(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과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窮殘(압축 소잔)을 興奮伸張(흥분 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인격(人格)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苛恥的(고치적) 財產(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 손손)의 永久完全(영구 완전)한 慶福(경복)을 導進(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 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與(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 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해야 取(취)하매 何強(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해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丙子(병자)條規(병자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시시) 種種(종종)의 金石盟約(금석 맹약)을 食(식)하였다 하여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 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여,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食(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 기초)와 卓犖(탁략)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여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緜緜(무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辦(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1. 글쓴이가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주장이 섭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현재와 유사한 역사적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재 상황의 불합리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주장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이점을 열거하고 있다.
 - ⑤ 주장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함을 역설하고 있다.

2. 전후 맥락으로 보아,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①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擺脫(과탈)하려 하면*
- ②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려 하면
- ③ 勇明果敢(용명 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려 하면
- ④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려 하면
- ⑤ 萬彙群象(만휘 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부활)을 成遂(성수)하려 하면

3. 다음은 위의 글이 발표된 이후에 어느 독립운동가가 쓴 글이다. 다음 글의 필자가 위 글을 접했을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政權)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 우리는 일본 강도정치(強盜政治), 곧 이족통치(異族統治)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敵)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단재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중에서

- 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잘못부터 먼저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 ②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해.
- ③ 독립 후에 새로 건설할 사회상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좀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어.
- ④ 우리가 스스로 맹세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본을 상대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어.
- ⑤ 강자를 설득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건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었군.*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단원 학습 목표'의 '내용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는 항목과, '알아두기'란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내용 생성 방법을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중에서 1번 문항의 답지는 설득하는

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 생성 방법이다. 2번 문항에서는 전후 맥락을 고려하라는 요구를 통해 이 구절이 통사적으로 특정한 스키마를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물론 그것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 스키마'의 틀이다. 이는 특히 '배경 지식의 활용'과 '유형화를 통한 주제의 구체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항이다.

3번 문항은 동기, 흥미, 습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는 교육과정상의 태도 범주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체적 가치 판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태도 범주를 염두에 두었다. 이 문항은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주관식 문항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나,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과 지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면 서술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 문항이다.

대체로 1번 문항이 원리 범주로, 2번 문항이 수행 범주로, 3번 문항이 태도 범주로 귀속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세 문항도 '내용 생성의 방법'이라는 학습 목표를 매개로 하여 상호 연관을 통해 범주간 결합을 이루어내고 있는 셈이다.

4. 국어 시험의 개선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간단하게 요약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총괄 평가로서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 선발을 위한 수능 시험 등 다른 형식의 평가와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문항의 유형 자체가 아니라 문항의 질적 수준이다. 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과정 및 단원 학습 목표와의 유기적 연관성이며, 이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문항의 정교성과 복잡성이다.

이제 국어 시험이 이런 방향으로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도적·정책적 차원의 방안을 제언으로 첨가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도적 현실이 강제하는 난관이 없는 바는 아니나, 국어 시험

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람 탓이다. 국어교육을 연구하는 주체, 교실에서 교수하는 주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단위에서 제대로 된 평가 문항이 보급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 문항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고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학회 차원이든 연구소 차원이든 평가 문항 경시대회를 열어 교사들의 열기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 전문가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참고서나 문제지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문항의 잘잘못을 감식해서 비평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시장의 경쟁에 참여할 용기도 가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4. 6. 26. 투고되었으며, 2004. 7.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4. 7.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김광해(1994), “국어교육 평가의 이상과 현실”, 『선청어문』 제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종서 외(199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개정판), 교육과학사.

김창원(1999), “국어교육 평가의 구조와 원리”, 『한국초등국어교육』 15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노명완(1988), “국어과 교육에서의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 『국어교육론』, 한샘.

노명완(1990), “국어과 교육에서의 평가”, 『국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인기(2000), “국어교육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와 실천”, 『국어교육』 102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백순근(1999a), “수행평가의 이론적 기초 및 실천 방안”, 『고등학교 국어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백순근(1999b), “교수-학습 활동에서 선택형 검사의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원리연구』 4권 1호, 교육원리연구회.

이삼형 외(1999), “국어교육과 평가 : 국어교육평가의 일반원리”, 연구보고서 99-2,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이삼형(1999), “국어교육 평가의 관점”, 『국어교육학연구』 9집, 국어교육학회.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최미숙(2000), “국어교육 평가의 원리와 실제 - '통합'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6호, 국어국문학회.

최지현(2000), “선택형 지필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 『국어교육』 103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최호성(1996), “선택형 평가와 수행적 평가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이론과 실험』 6집,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Carter, Ronald & Long, M.N.(1991), Teaching Literature, Longman.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의 '법령정보' 메뉴 중 '훈령'

〈초록〉

중등학교 국어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향

류수열

이 글은 고등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중심으로 하여 중등학교 국어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국어 시험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는 단순 암기에 의해 답을 찾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평가 문항과 학습자의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답을 구성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총괄평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능 시험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개별 학교와 수업 단위, 개별 교과와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표준화의 과잉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개별 단위 목표도 충실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이와 맞물려 있다. 또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가 총괄평가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증거는 진단 평가나 형성 평가와 구별되지 않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재에 제시된 단원별 학습 목표에 충실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문항 구성 요소의 정교화와 복잡화를 통해 형성 평가 및 진단 평가와의 차별화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질 범주, 원리 범주, 태도 범주, 실제 범주가 혼합되고, 개념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섞이는 문항 등이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단답형, 선택형 등도 다른 유형의 문항과 함께 병렬적으로 구성됨으로써 그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총괄 평가, 국어 시험, 표준화의 과잉, 교과의 특수성, 문항의 정교화, 내용 범주의 복잡화

<Abstract>

For the Improvement of Summative Evaluation
of Language Arts in the Secondary School

Ryu, Su-yeol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way of improvement of language arts evalu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by monitor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mid-term and term-end examination.

A characteristic of the present examination of secondary school is the coexistence of old and new paradigm. The old paradigm means the questions requiring the one and only answer, and the new paradigm means the question encouraging active and voluntary thinking.

In this condition, the mid-term and term-end examination can't play role of summative evaluation. It doesn't accommodate the uniqueness of individual school, class, and subject, that is to say the surplus of standardization. On the contrary, the summative evaluation has a tendency to resemble diagnostic and formative evaluation in the form of question. In a word, it is the loss of identity as summative evalua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question item subjective to the goal of study suggest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 and devise discrimination between summative evaluation and diagnostic and formative evaluation. The question items containing the category of declarative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will be a new example. And the different item type including true and false type, alternative type is necessary to be set in a lineage.

【key words】 summative evaluation, language arts examination, surplus of standardization, particularity of subject, elaborateness of question item, complex of content category